

스위스 CDM 인정 · 감독 기구 총괄 책임자를 만나다



Mr. Yvan
Keckeis

스위스 DNA의 CDM 총괄 책임자

에너지, 산업, 쓰레기 처리,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정개발 프로젝트(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시현하여 UN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Change) 내에서 해당 감축 분을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국마다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를 지정해야 한다.

스위스의 DNA 개요

기관명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FOEN, Climate Unit (Bundesamt fuer Umwelt BAFU)
주소	SwissFlex / Sektion KlimaPapiermuehlerstrasse 172, 3063 Littigen
담당자	Mr. Yvan Keckeis 전화 : +41 31 324 7184 팩스 : +41 31 323 0367 이메일 : swissflex@bafu.admin.ch, yvan.keckeis@bafu.admin.ch

스위스의 DNA는 환경청(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FOEN, Climate Unit) 내에 있으며, 담당자인 Mr. Yvan Keckeis와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토 의정서 내에서 스위스는 감축의무가 있는 'Annex B Party'에 속하며, 2008~2012년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 감축해야 한다. 동 교토 의정서 상의 감축의무를 넘어서 스위스 자체적으로 규정한 추가적 감축목표가 있는가? 또한 EU와의 협업 정도는?

스위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2012년 동안 1990년 대비 -10% 감축할 계획이다.

EU와는 기후변화 관련 '대체 에너지 및 기타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특히 협업하고 있으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등 국제 협상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CO₂ 법규(CO₂-Gesetz)'를 EU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맞추고 있다.

2.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위스 자국 내 감축 대비 CDM/JI 등을 통한 해외에서의 감축분 조달의 비율이 있는가?

이미 교토 의정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CDM 등 교토 메커니즘은 스위스 감축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보완 수단'이다. 스위스 정부는 교토 메커니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전체 감축목표에 50%로 제한하고 있다.

3. 스위스의 DNA인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FOEN, Climate Unit 및 담당자인 당신의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

우리 기관은 기후변화협약(UNFCCC) 내 원 취지 그대로 민간 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CDM 사업의 감독 및 스위스 내 공식 인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교토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전파를 담당한다. 나는 총 책임자이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DNA가 CDM 사업 실시에도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스위스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UNFCCC) 내 당사국 회의(COP:Conference of Parties)에서 스위스를 대표하여 협상하고 있으며, 각종 실무자 워킹 그룹에도 참여하고 있다.

4. UNFCCC에 따르면 스위스는 영국(북아일랜드 포함)에 이어 제2위의 CDM 투자국으로 알려져 있다. 스위스의 CDM 사업 및 CERs 시장 추세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

CDM이 실시되기까지는 일정한 경로를 거쳐야 한다. 우선 해당 프로젝트는 실시국인 비 의무국가 뿐만 아니라 투자국인 의무국에서도 당국(DNA)에 의해 공식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프로젝트가 실시되면 온실가스 감축분에 상응하는 인증서가 발부되어야 하는데 (동 과정을 거쳐야만 UNFCCC가 감축분을 CERs 등으로 공식 인정), 2007년 12월 기준 인증서 온라인 발급 전자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는 스위스 외에는 거의 없었다. 이에 CDM 사업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시현한 해외 기업/투자자들이 감축분을 인정받고 CERs를 교부받기 위해 스위스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서, 스위스가 마치 많은 CDM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외관상 보이고 있다. 물론 스위스 자체적으로 Climate Rappen¹⁾, First Climate²⁾, Southpoolcarbon³⁾ 등 기업들의 기부 혹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들이 해외에서 CD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ERs와 관련, 적어도 스위스 정부 입장에서는 구입할 의사가 없다. 물론 관심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CERs를 구입 및 판매할 수 있다. 참고로 스위스 내에서는 CERs 등 교토 배출권을 매매하는 증권 거래소가 별도로 없다. 다만 Credit Suisse 등 일부 금융계 기업들이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

5. CDM을 장려하기 위한 스위스 정부의 정책을 소개해 달라.

이미 언급된 바처럼, CDM 사업은 민간 기업의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스위스 정부의 지원책은 없다.

6. 스위스 및 한국기업간의 CDM 관련 협력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정부기관에서 관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 알려지다시피 스위스는 금융 산업이 발달해 있어 CDM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생성된 CERs를 중간에서 중재하거나 구입 및 판매하는 데에 기업들의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각종 오염수치 변화

투자국	CDM 프로젝트수	비중(%)
영국(북아일랜드 포함)	570	29.2
스위스	409	20.9
네덜란드	217	11.1
일본	211	10.8
스웨덴	119	6.1

주 : UNFCCC에 등록된 CDM 프로젝트 수 (2009년 4월 27일 기준)

출처 : UNFCCC

1) 기후라펜 : 2005년 10월 1일 도입, 스위스 정부가 업계의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자발적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제도로, 참여기업은 벤젠 및 디젤에 대해 리터당 1.5 라펜(1 스위스 프랑 = 100 라펜)을 납부

2) www.firstclimate.ch 참조

3) www.southpoolcarbon.com 참조